

●●● Mr. Richard Wall H&N판매 홍보이사

## 아시아 채란산업 생산 잠재력 높다



▲ Richard Wall  
메사추세츠주립대학 동물육종학 전공  
아이호다주립대학 양계학, 경제학 석사  
31년 양계산업에 종사  
-셰이버(Shaver)  
-버틀러(Butler)  
-Chilson(계란생산 컨설턴트)  
현 H&N 미국지사서서 세계 판매, 홍보 이사(17년간)

**보**고는 지난 9월 11일 한국을 방문한 H&N사의 Richard Wall 이사를 만나 전 세계의 채란업 동향 및 한국방문 목적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한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 세계 채란업 현황은?

현재 전 세계는 64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계란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타 생산품에 비해 싸기 때문에 소비량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생산 잠재력이 가장 크며, 중국 뿐만 아니라 인도가 무서운 성장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수출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역시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소비량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안전성을 지향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유럽에서는 2012년까지 현재의 케이지 사육을 복지차원의 케이지(수당 550cm<sup>2</sup>)

상)나 펄사, 방사로 전환하고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미국 채란업 전망은?

현재 미국의 채란산업은 지난해부터 과잉생산이 이어져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계란의 우수성 홍보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 계란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량의 증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소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큰 기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동물복지정책으로 케이지를 없애거나 복지 케이지 사육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도 현재 부리자르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까지 케이지 면적이 수당 430cm<sup>2</sup>의 공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물론 현재 100%의 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식품회사인 버거킹과 맥도널드사에서는 금년 이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이제는 방사란, 유기란 등이 좋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차후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전략을 바꾸어야 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한국방문과 활동 상황은?

저는 전세계를 상대로 H&N사에서 생산되는 닭 품종(Nick Chick, Brown Nick, Super Nick)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채란업 현황을 알기 위해 방문했는데, 1년에 최소 2차례 정도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것은 지난 1981년 당시 천호그룹에 부화기를 보급하기 위해 방한 한 것이 인연이 되었으며, 지난 1988년부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H&N사에 입사하면서 백색인 니치과 갈색인 브라운닉 품종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1945년에 처음 설립된 H&N사는 현재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육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의 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나라는 터키로 자국내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에 보급율이 높고 그 밖에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아 등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5년전에 비해 원종계는 40%, 종계는 60%의 성장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한국내 브라운닉의 홍보 전략은?

한국에는 지난 2001년도에 브라운닉 종계 8만 수를 수출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내부적인 여건상 지속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의 실패가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한국의 부화장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는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정소가 있기 때문에 공인된 성적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산란계 검정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타 품종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채란업을 경영하는 양계인들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예로 중국과 일본의 농장에서 '틴티드에그'의 성적을 시험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 수입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틴티드에그는 갈색과 흰색의 중간색으로 네덜란드 등 일부 나라에서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한국에는 갈색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운닉"의 우수성을 알려 시장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 | 김동진 홍보팀장)